

<p>민 지 실</p> <p>음 혜 천</p>	<p>B U D D H A N A R A</p>	<p>FAITH WISDOM ACTION</p>
---	----------------------------	---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佛性을 밝힌다.

매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 10월 법회 -

- 첫째주 일요일 11시 초하루 기도 법회
- 둘째주 일요일 11시 인등 기도 법회
- 셋째주 일요일 11시 전법 기도 법회, 교리탐구
- 넷째주 일요일 법회는 쉽니다.

- 11월 법회 -

- 첫째주 일요일 법회는 쉽니다.
- 둘째주 일요일 11시 전법 기도 법회, 교리 탐구
- 셋째주 일요일 11시 초하루 기도 법회
- 넷째주 일요일 11시 인등 기도 법회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Zen Meeting -



Every Saturday 10am. (매주 토요일 10시)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이달의 법구경: - 오직 내가 내 주인 되는 것이지
 나 밖의 어느 누가 내 주인 될 수 있을까?
 주인과 하인 하나라면
 진실로 이것이 나를 돕는 것이라네.

Only a man himself can be the master of himself: who else from outside could be his master? When the Master and servant are one, then there is true help and self-possession.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도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부처님 말씀:

지옥의 길 열반의 길

正見 갖고 살아야 열반行- 샅된 말 샅된 소견은 지옥行; 나도 즐겁고 남도 편한 길은 손해보더라도 꼭 가야할 길

부처님이 사위국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지옥으로 가는 여덟 가지 길과 열반으로 가는 여덟 가지 길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다.

“지옥으로 가는 길도 여덟 가지가 있고, 열반으로 가는 길도 여덟 가지가 있다. 잘 듣고 명심하여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러면 어떤 것이 여덟 가지인가.

첫째는 올바른 소견(正見)을 갖는 것이다. 그러면 열반으로 향할 것이다. 그러나 샅된 소견(邪見)을 가지면 지옥으로 향하게 된다. 둘째는 올바른 사색(正思惟)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열반으로 향할 것이다. 그러나 샅된 사색(邪思惟)을 하면 지옥으로 향하게 된다. 셋째는 올바른 말(正語)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열반으로 향할 것이다. 그러나 샅된 말(邪語)을 한다면 지옥으로 향하게 된다. 넷째는 올바른 업(正業)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열반으로 향할 것이다. 그러나 샅된 업(邪業)을 행하면 지옥으로 향하게 된다. 다섯째는 올바른 생활(正命)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열반으로 향할 것이다. 그러나 샅된 생활(邪命)을 하면 지옥으로 향하게 된다. 여섯째는 올바른 정진(正精進)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면 열반으로 향할 것이다. 그러나 샅된 정진(邪精進)을 실천하면 지옥으로 향하게 된다. 일곱째는 올바른 사념(正念)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면 열반으로 향할 것이다. 그러나 샅된 사념(邪念)을 실천하면 지옥으로 향하게 된다. 여덟째는 올바른 선정(正定)을 닦는 것이다. 그러면 열반으로 향할 것이다. 그러나 샅된 선정(邪定)을 닦으면 지옥으로 향하게 된다. 수행자들이여, 이것이 지옥으로 가는 여덟 가지 길이고 열반으로 가는 여덟 가지 길이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한가한 곳이나 나무 밑에 앉아 좌선하기를 즐겨하고 게으르지 말라. 지금 부지런히 닦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느니라.

- 증일아함37 권 팔난품(八難品) 제10 경.

‘이리가면 정상도길 저리가면 전라도길 돌아가면 충청도길...’ 유행가 가사가 아니더라도 인생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 길이 펼쳐져 있다. 사람들은 이 길을 앞에 두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망설인다. 불교는 이렇게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제시한다. 정견에 의한 올바른 길을 가고, 사견에 의한 그릇된 길을 가지 말라는 것이다.

문제는 무엇이 올바른 길이고 무엇인 그릇된 길인가 하는 것인데, 이것을 판별하는 기준은 오직 한 가지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열반으로 향하는 길인가 지옥으로 향하는 길인가, 성스러움을 증식시켜주는 길인가 세속적 시비에 휘둘리는 길인가를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다. 만약 시비를 해서라도 열반으로 향할 수 있다면 그 길이 옳은 길이다. 반대로 거룩한 척해도 시비를 불러오는 것이면 지옥으로 향하는 길이 분명하다.

이 기준대로라면 불자가 가야 할 길과 가지 않아야 할 길은 분명하다. 정의나 원칙의 주장을 내걸고 싸움을 하는 일 따위는 당연히 가지 않아야 할 길이다. 반면 나도 즐겁고 다른 이도 편하게 하는 길이라면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설령 남들이 바보라고 하거나 현실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욕심에 눈이 가린 사람들은 이런 판단을 하지 않는다. 무조건 싸워서 승리하면 그것이 정의고 진리지, 패배하고 나서 아무리 억울해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한다. 이런 주장은 세속적 관점에서는 일리 있는 말이기도 하다. 다만 이에 대해 부처님이 동의해주실 지는 의문이다. 하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부처님도 안중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열반의 길과 지옥의 길이 엇갈리는 운명의 교차점은 바로 여기가 아닌가 싶다.

왜 팔정도를 닦지 않는가 ?

부처님이 마가다국에 있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제자들과 강가에 나갔던 부처님은 강 가운데로 큰 나무가 떠내려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 가르쳤다.

“만일 저 나무가 바다에 이르고자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이쪽저쪽 언덕에도 닿지 않아야 하며, 중간에 가라앉거나 언덕위로 오르지도 않으며, 사람이나 또는 사람 아닌 것에 붙잡히지 말아야 하며, 물길을 거스르지도 썩지도 않아야 무사히 바다에 이른다.

수행자들이 수행을 하여 열반의 바다에 이르는 것도 이와 같다. 이쪽저쪽 언덕에도 닿지 않아야 하며, 중간에 가라앉거나 언덕위로 오르지도 않아야 하며, 사람이나 또는 사람 아닌 것에 붙잡히지 말아야 하며, 물길을 거스르지도 썩지도 않아야 열반의 바다에 이르게 된다. 왜냐하면 열반이란 바른 소견(正見), 바른 다스림(正治), 바른 말(正語), 바른 업(正業), 바른 생활(正命) 바른 방편(正方便) 바른 사념(正念) 바른 선정(正定)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난다라는 소치는 목동이 이 말을 듣고 자기도 출가하여 열반의 바다에 이르고 싶다고 했다. 부처님은 출가하고 싶다면 주인에게 소를 돌려주고 오라고 했다. 그는 소를 돌려주고 와서 출가하여 머리를 깎고 수행자가 되었다. 이를 지켜본 어느 수행자가 부처님이 비유로 말씀한 ‘이쪽 저쪽 언덕’과 ‘여덟가지 장애’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것은 이런 것이다. 이쪽 언덕이란 이 몸이요, 저쪽 언덕이란 이 몸이 없어진 것을 말한다. 중간에 가라앉음이란 욕망과 애착이요, 언덕위에 오른다는 것은 욕심을 말한다. 사람에게 붙잡힘이란 그 공덕으로 국왕이나 대신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사람 아닌 것에 붙잡힘이란 그 공덕으로 천상락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이다. 물길을 거슬러 되돌아온다는 것은 의심을 말하는 것이며, 썩는다는 것은 여덟 가지 바른 수행(八正道) 닦지 않고 그 반대의 삿된 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난다비구처럼 갖 출가했음에도 스스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여덟 가지 장애를 물리치고 수행을 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그 자리에서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게 되리라.”

중일아합38 권 마혈천자품(馬血天子品) 제3 경

불교수행의 궁극적 목적은 무고안온(無苦安穩)한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다. 열반은 불교도가 추구하는 최고의 행복이다. 그러나 이 최고의 행복, 최후의 행복에 도달하려면 보다 진지한 노력과 수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겉으로만 수행자 흉내를 내거나, 말로만 수행을 한다고 해서는 결코 열반에 이를 수 없다.

주위를 둘러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진지하게 팔정도를 닦아나가는 사람이 드물다. 머리만 깎고 승복만 걸치고 있으면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출가자나, 이 절 저 절 왔다 갔다 하면서 남의 흉이나 보고 잘난 척하는 재가불자가 너무 많다. 모두가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는 소홀하면서 입으로만 수행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 열반의 길은 백년하청(百年河淸)이다.

수행은 절반은 놀고 절반은 쉬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할지는 둘러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물질을 보면 욕심을 못 버리고, 화나는 일을 만나면 참지 못하고, 지혜로운 충고를 받고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심지어는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너는 용서못한다"는 극단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부처님은 이경에서 그런 사람들을 조용하게 타이르고 있다. 그렇게 하다가는 욕망과 애착에 붙들려 윤회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혹시 나는 지금 열반으로 향하는 거룩한 물결(預流)을 역류시키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각자의 발길을 살펴볼 일이다.

9 월의 경전 공부:

원각경

보살 12 명과 부처님의 문답 답아, 무명을 끊고 ‘불성’ 드러내는 내용
“깨달음의 마음은 동요가 없다”

“선남자여, 일체 중생들의 갖가지 실체 없는 허깨비 같은 것들이 모두 여래의 원만한 깨달음인 미묘한 마음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니 마치 눈이 피로해졌을 때 헛것으로 보이는 허공의 꽃이 허공에서 나와 있는 것 같으니라. 허공의 꽃은 결국 없어지는 것이지만 허공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중생들의 허깨비 같은 마음이 다 없어져도 깨달음의 마음은 아무런 동요가 없느니라.”

<원각경(圓覺經)> 보현장에 나오는 위의 구절은 중생들의 갖가지 생멸 경계가 불생불멸하는 각성(覺性)을 의지해 있다는 것을 밝혀주는 말이다. <원각경>은 허깨비라는 뜻의 환(幻) 범문으로 유명한 경전이다. 이 허깨비를 알아버리면 허깨비가 사라져 바로 깨달음의 자리가 드러난다는 돈오(頓悟)의 이치를 설해 놓은 경이라 하여 예로부터 돈교(頓教)라고 교상판석(敎相判釋)을 해 온 경이다.

이 경도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시해 온 경으로 중생들의 무명을 끊고 불성을 드러내게 하는 대의를 가지고 있다.

당나라 때 북인도 출신의 승려 불타다라(佛陀多羅)가 번역했다는 한역본이 전해지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유명한 주소(註疏)들이 남아있는 경이나 <능엄경>과 마찬가지로 범어 원전을 발견할 수 없어 중국에서 찬술된 경으로 본다. 원래의 경제목은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이다.

경의 내용은 12 명의 보살들이 등장하여 부처님과 문답을 나누는 형식으로 전개된다. 처음 문수보살장에서는 여래의 인행(因行)을 밝히면서 원각을 닦는 자가 중생계의 모든 현실이 허공의 꽃이요, 꿈과 같고 허깨비인줄 알면 생사윤회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생사가 곧 열반이고 윤회가 곧 해탈이라 하였다.

제 2 보현보살장에서는 원각을 닦는 방법 곧 관행(觀行)에 대하여 설하고 있다. 제 3 보안보살장에는 원각을 닦는 자 곧 수행자의 사유방식을 설하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무상(無常)하다고 보아 일체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이 보안장의 구절을 발취하여 별도로 유통시킨 무상계(無常戒) 범문이 있다.

제 4 금강장보살장에서는 세 가지 의심을 제기하는 내용이 있다. 만약 중생이 본래 성불한 것이라면 왜 다시 중생에게 무명이 있다 하는가. 만약 중생에게 본래 무명이 이는 것이라면 어찌하여 본래 성불이라 하는가. 만약 본래성불에서 다시 무명을 일으켰다면 여래는 언제 다시 번뇌를 일으킬 것인가. 이같은 의문을 제기, 이에 대한 답을 듣는다. 제 5 미륵보살장에서는 윤회를 끊는 방법을 제시하고 제 6 청정혜보살장에서는 성문, 연각, 보살, 여래, 외도의 5 성차별을 설한다. 제 7 위덕자재보살장에서는 각성을 수순하는 방법인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 곧 적(寂), 정(靜) 환(幻)의 삼관(三觀)을 설하고 있다. 제 8 변음보살장에서는 삼관을 홀으로 닦고 곁하여 닦으면서 어는 것을 먼저 하고 나중하는가 하는 근기에 맞춰 관을 닦는 25 료(二十五輪)에 대한 설명이 있다.

제 9 정제업장보살장에서는 말세중생을 위한 안목을 설하는 장래안(將來眼)에 관한 설명이 있고 제 10 보각보살장에서는 원각을 닦는데 있어서의 주의해야할 네 가지 병에 관하여 설한다. 제 11 원각보살장에서는 안거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하고 제 12 현선수보살장에서는 경의 이름을 수지하는 방법과 경을 수지하는 공덕에 대하여 설한다.

교리공부: 괴움의 극복, 열반 (일체의 고뇌 이긴 행복의 경지)
 선정 닦아 지혜 터득하면 장애 벗고 ‘열반’에 도달

부처님께서 진리로 확정하여 내거신 세 번째 기치(旗幟)는 열반적정(涅槃寂靜), 즉 ‘탐진치의 불꽃이 사위어 버린 완전한 평온의 행복’이다.

열반(涅槃)은 산스크리트어 니르바나(nirva)를 소리를 따라 옮긴 말로서 불교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이상의 경지를 가리킨다. 부처님은 수행을 통해 도달한 궁극적 경지를 해탈(解脫, vimoka, vimikti) 또는 열반이라고 불렀다. 해탈은 결박이나 장애로부터 벗어난 해방이나 자유를 의미하며, 열반은 ‘불어서 끄다[吹滅]’는 뜻에서 전의(轉義)되어 타오르는 번뇌의 불길이 꺼진 고요하고 평온하여 행복한 상태를 의미한다. 니르바나를 음역하여 한자로 표기할 때는 주로 열반이라고 하였지만 종종 니원(泥洹)이라고도 하며, 완전함과 영원함을 강조할 때는 반열반(般涅槃, pari-nirva)이라고도 한다.

열반이란 탐욕이 영원히 사라지고 성냄[瞋]이 영원히 사라지고 어리석음[痴暗]이 영원히 사라진 경지이니, 즉 일체의 모든 번뇌가 영원히 사라진 경지를 열반이라고 한다. <잡아함> 권 18.

열반의 뜻을 좀 더 다양하게 옮겨 보면, 사라짐[滅], 사라져 고요함[寂滅], 속박을 떠남[離繫], 벗어남[解脫], 완벽한 고요함[圓寂]이 된다. 따라서 열반은 ‘궁극적 깨달음[覺, 菩提]을 완성함으로써 도달한, 죽음까지 포함하는 일체의 고뇌를 이긴 절대적 행복의 경지’를 일컫는 말로 정의될 수 있다.

열반의 경지는 깨달음을 이룬 자만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초월적 경지이기 때문에 언어나 이론으로는 알 수도 표현할 수도 없다. 오로지 체험으로만 성취할 수 있다. 열반의 체험은 쾌락의 길도 아니고 고행의 길도 아닌 제 3의 길, 즉 중도(中道)인 깨달음의 길로만 도달한다. 초기불교에서는 계율을 지키고 그런 다음 선정을 닦고 드디어 지혜를 터득함으로써 체험하는 단계적 혹은 종합적 의미가 강했으나, 대승불교 시대에 이르면 열반을 체득하기 위한 실천방법은 주로 깨달음에만 집중되었다.

열반을 체험한 이들의 고백에 의하면, 열반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변화를 초월하여 영원히 계속됨을 뜻하는 상(常), 상대적인 쾌락이 사라지고 절대적인 행복만이 있음을 뜻하는 낙(樂), 참나(眞我)의 여덟가지 자유로움(自在)을 갖추고 있음을 뜻하는 아(我), 미혹[惑]과 그에 따른 잘못된 행동[業]과 그 결과인 고통[苦]으로 가득 찬 오염된 세상을 초월하여 청정함이 가득하다는 의미의 정(淨)이라는 4가지 미덕이 있다.

또한 열반의 경지에는 팔미(八味)라 하여, 생멸하지 않는 영원함의 상주(常住), 미혹의 번뇌에도 동요되지 않는 고요함의 적멸(寂滅), 영원히 늙지 않고 젊음을 유지하는 불로(不老), 결코 죽음이 없는 불사(不死), 어떠한 번뇌에도 물들지 않는 맑고 깨끗한 청정(淸淨), 어떠한 장애에도 가로막히지 않는 자유로움의 허통(虛通), 어떠한 동요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부동(不動), 언제나 행복감으로 가득한 쾌락(快樂)등의 여덟가지 의미가 있다.

열반은 무지(無知)라는 연료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아 욕망이란 불길이 사위어 버린 상태를 의미한다. 욕망의 불길이 꺼졌다면 그곳엔 더 이상 고통이 없고 고통이 없는 상태란 바로 행복을 의미한다. 열반이란 현대언어로 말하자면 완전한 행복이다.

유대인 스님들과 초기불교

근세 최초의 서양 스님을 들라면 학자들은 주저 없이 나나뎔로까(Nyanatiloka, 지혜의 삼계, 1878~1957) 스님을 꼽는다. 스님은 독일에서 태어나 독일 국적이지만 태생은 유대인이었다 한다. 스리랑카에서 출가한 스님은 1920년에 독일어로 <청정도론>을 번역해내었는데 <청정도론> 최초의 서양 번역이기도 하다. 스님이 영어로 지은 <불교용어 사전>은 지금까지도 초기불교의 주요술어를 이해하는 사전으로 널리 애용되고 있다.

경전 영역해 세계에 보급 공헌

나나뎔로까스님의 상좌면서 그의 뒤를 이은 서양 스님으로는 나나뎨니까(Nyanaponika, 지혜의 여울, 1901~1994) 스님이 있다. 스님 역시 독일 출신이지만 유대인이었다고 하며 역시 스리랑카에서 출가하였다. 1950년대에 불자출판회(BPS, Buddhist Publication Society)를 창설하였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불서출판협회로 자리 잡고 있다.

BPS의 소책자들은 (사)고요한 소리를 통해서 20년간 한국어로 번역되어 국내에 보급되고 있기도 하다. 스님은 초기불교의 많은 경들을 영어 소책자 단행본으로 번역하여 세계적으로 많이 보급하신 분으로 유명하다.

역시 서양출신 스님에 나나몰리(Nyanamoli, 지혜의 관모, 1905~1961?) 스님이 있다. 스님은 영국 국적을 가졌지만 역시 유대인이었다고 한다. 옥스퍼드에서 학부를 졸업하였다고 하는데 공군 조종사로 2차대전에 참가하였다가 전쟁이 끝나고 무상을 절감하여 스리랑카에서 43세에 출가하였다고 한다. 심장마비로 입적하기까지 10여년을 초기경의 주옥같은 영어번역을 하였다. 스님이 번역한 <청정도론> 영역본은 <청정도론>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책으로 지금도 세계적으로 널리 읽히고 있으며, 스님이 번역한 <맛지마 니까야>와 <무애해도>도 널리 읽히고 있다.

나나뎨니까 스님의 뒤를 이어 지금 BPS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분이 보디(Bodhi, 1944~) 스님이다. 스님은 미국 국적이지만 역시 유대인이라고 한다. 27세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스리랑카로 건너가서 출가하여 지금까지 출가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기도 하다. 스님이 번역한 <상웃따 니까야> 영역본은 주석서를 철저히 참조하면서 이루어낸 초기경 번역의 표준이 되는 책이다. 특히 스님이 책임편집인으로 1992년에 역출해낸 상좌부 아비담마에 관한 최고의 지침서이다. 이 책을 저본으로 해서 초기불전 연구원에서는 필자와 대립 스님이 공동으로 <아비담마 길라잡이>를 상/하 두 권으로 출간하였는데, 어려운 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전체 5판 5000질, 즉 만권을 출간.판매하여 교계 출판관계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대승 소승보다는 ‘실천’ 중시

아무튼 이러한 유대인 출신 스님들이 서양에 불교의 뿌리를 확고하게 내리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이처럼 백인불교의 핵심에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의 불교는 JeBu(Jewish Buddhist)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낼 정도이다.

서양불교계는 대승이니 소승이니 하는 지말적 현상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들에게는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불교만이 중요할 뿐이며, 그런 토대로 초기불교를 주목하고 있다. 한국 불교계에도 네 분 스님과 같은 훌륭한 사상가와 번역가와 수행가로서의 스님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소망해본다. -각목 스님-

교리 문답:

참선은 명상과 다른가요?

사상적 뿌리는 같으나 지향점 다르고 선정에 들어 정, 해 닦는 수행이 참선

문: 불교의 수행법 중 참선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명상이나 요가 등과 형식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 질문처럼 요즘 명상 수련이나 요가 등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초심 불자들이나 일반인들은 불교의 참선법과 형식이 유사한 명상이나 요가를 불교의 수행법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불교가 발생했던 인도는 부처님 이전부터 명상 수련이나 요가 등이 널리 행해졌습니다. 거의 인도의 모든 종교와 철학에서 명상과 요가를 수행의 한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교도 넓게는 그와 같은 환경에서 발생했으므로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불교의 참선 수행과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요가나 명상 수련은 그 뿌리가 같은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상적인 측면, 실제적인 형식에서 동일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가 인도적 토양에서 자랐지만 인도의 전통 사상들과는 다르듯이 참선 수행과 이들 요가나 명상 수련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일단 사상적 측면이 다르지만 그런 것보다는 형식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현재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주변에서 유행하고 있는 명상과 요가는 주로 자신의 건강보호와 유지를 위해 행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사상이나 목적보다는 형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단전호흡이나, 좌선의 자세 등을 취하면서 정서적 안정, 복잡한 마음의 휴식 등으로 스트레스와 같은 현대의 심리적 현상을 치유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면에 참선은 몸가짐, 마음가짐을 안정시킨 가운데 불교에서 가르치는 진리를 파악하기 위해 내면적으로 깊이 침잠하는 방법입니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는 종교적 수행을 훨씬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다보니 어떤 방법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형식에 있어서 불교는 훨씬 자유롭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처음으로 입문하는 분들이나 알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소개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형식적으로 유사한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선 수행의 본질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禪)은 인도 말로 조용히 생각한다는 말인데, 여기서 조용히 생각한다는 것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지혜와 안정된 상태인 선정(禪定)을 일치시켜 정혜(定慧)를 닦는다는 뜻입니다. 정신을 집중하여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파고 들어가는 수행법인 것이지요.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 진리를 보는 수행이기 때문에 의식의 안정을 위해서 호흡법이나 정신 집중의 방법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현대 스리랑카의 위대한 사상가이자 스님이었던 ‘월포라 라홀라’박사는 부처님이 제시한 불교의 명상 수행이 거의 기술적인 면에서 종교의식이나 형식의 일종으로 가치가 낮아지고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불교는 탐욕과 증오 등의 삼독심을 떨치고 마침내 사물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보고 궁극적인 진리를 실현하여 열반에 이르고자 하는 종교적 수행입니다. 참선 같은 불교적 명상법은 수행을 전제로 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의 인연들과의 관계, 즉 실제 생활에서 자신의 삶의 한 형태로 표현되어 지고 실현되어 져야 하는 것이지요. 참선 수행이 기술적이고 단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그 참뜻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답변: 남전스님 / 서울 정혜사 주지

법회소식 NEWS

- 11 월 12 일 (올력 10 월 3 일)은 대한 불교 조계종 원로 강석주 큰스님이 입적하신지 3 주년이 되는 해 입니다. 올해에도 큰스님 제사는 한국 온양이 위치한 보문 선원에서 있습니다. 올해에도 불국사 주지스님과 불국사 후원회원들은 제사 하루 전에 보문선원에 내려가서 제사준비 및 제사 당일 차담 담당을 합니다. 큰스님 제사 봉사 동참을 원하시는 신도님들은 미국에 있는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후원회로 연락 주십시오.
- 10 월 24 일부터 11 월 15 일까지 불국사 주지 연암 선각 스님이 후원회 법회 및 강석주 큰스님 3 주기 기제사 참석차 한국으로 일시 귀국 하므로 이 기간동안 불국사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기간동안 불국사에 연락을 하시고자 하시는 신도님들은 무량화 문봉순 불국사 회장님이나 보광 이진욱 불국사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스님이 안계시는 동안 신도님들은 사찰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꼭 스님에게 연락을 원하시는 신도님들은 회장님이나 한국에 있는 불국사 후원회로 연락 주십시오. 스님이 안계신 관계로 10 월 넷째주 일요 법회와 11 월 첫째주 일요 법회는 쉬지만 11 월 둘째주 일요일 법회는 회장님과 총무님 중심으로 법회가 있습니다. 신도님들의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 2007 년 12 월 22 일 토요일 15 시 8 분은 일년중 밤이 제일 길다는 동지 입니다. 불국사에서는 12 월 23 일 셋째주 일요일에 동지 기도 및 팔죽 공양이 있습니다. 동지기도에 많이들 참석 하셔서 감기가 유행하는 겨울에 찻쌀 웅심이도 듬뿍 들어간 팔죽도 드시고 모든 액운을 물리치고 건강하게 겨울도 보내십시오. 또한 이날 2008 년 새해 달력도 드립니다. 잊지들 마시고 달력들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9 월 넷째주 일요일에 가졌던 추석 법회에 많은 신도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이날 “추석 기도”, “송편 만들어 보기”, “회식”등 뜻깊은 시간들을 신도님들과 같이 보내 주셨던 모든 신도님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성불 합시다.

9 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12 번 임술생 한동빈, 91 번 신사생 김재순, 92 번 무신생 최동화, 93 번 무신생 김승애, 94 번 신미생 최수현, 95 번 갑술생 최현섭, 106 번 정해생 김준성, 138 번 임오생 이종수, 139 번 이현우, 140 번 갑인생 이명우, 143 번 병진생 조용희, 202 번 임술생 김정훈, 219 번 임신생 송채원, 220 번 계유생 송지환.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2 주주 일요일에 있습니다. 인등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시는 가람을 지으면, 그가 후세에 태어나는 곳마다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중생들은 사바세계가 혼탁하고 탁류가 거셀수록 부처님의 자비하신 참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정신대로 살고자 더욱 간절한 원력을 세웁니다. 또한 물질화 마음의 정서가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마음의 교양과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담당해 줄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불교인구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불교 포교를 위해서 법당과 선방 건립에 필요한 한 평 불사 인연에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자비심이 지극하신 분들의 정성으로 이룩된 붓다나라 템플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불국토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희망차고 기쁨에 찬 수행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은 이 인연공덕으로 불자님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여 자비의 문이 열리고 이 세계가 불국정토 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 9 월 한 평 불사 동참자: 정해생 한복희
- 2008 년 달력 시주자: 이미란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불국사 회장님이나 총무님, 또는 불국회 회장님 및 불국회 두분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Buddhanara Temple (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 (Buddhanara Temple) 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시다.